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노 동 일
경희대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판 문화대혁명’, ‘트럼프 당선’에 대해 중국 일각에서 나오는 평가다. 설마가 현실이 된 것이다. 민주당 정권 8년을 지났으니 이번에는 공화당 차례였다. 미국 정치의 법칙이 그렇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당장 걱정은 우리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인은 기행과 막 말을 일삼던 인물이다.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트럼프의 공약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무슬림 입국 금지’ ‘불법 이민자 추방’ 등은 실현되기 어렵다. 비용이나 정치적 역학 관계, 법률적 문제 등이 얽혀 있다. 그에 반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종교칼럼



연 광
증심사주지·광주불교연합회장

인생은 참으로 불가사의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름답기도 하다가 고통도 겪고 그러다가 인생의 황혼기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어떻게 보일까? 마치 우리가 일 년을 마감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는 느낌이 있지 않을까? 숲 가쁘게 정신없이 살아왔지만 진정한 의미나 기쁨을 찾아보기는 힘든 버거운 작업들이 많을 것이다. 왜 그럴까? 나의 잘못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정의가 없기 때문일까?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각기 차이가 있다. 총명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게 태어나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좋은 조건이라곤 전혀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이들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기 고



박 홍 필
극단 새결 대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말이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더니 과연 이것이 이 비극적 연극의 마지막인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동철해 하고 있다. 더구나 여주인공은 아무런 대사나 움직임도 없이 무대에서 내려가질 않으니 관객들은 충격을 넘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서로 쳐다보기만 할 뿐이다. 한 가지,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짧고 모호한 대사와 카리스마 넘치는 광선충 노빛 연기만으로 상대배우들을 찢절매게 하던 여주인공의 캐릭터가 철저하게 관객들을 기만한 것이었고 오해할 수밖에 없게끔 계산된 것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한 또 한 명의 여배우는 거의 무대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결말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실질적 주인공이라 할 만큼 공포스러운 만큼의 존재감을 과시하고야 말았다! 요즘 어떤 TV드라마보다 뉴스가 더 흥미진진하고 상상력을 뛰어넘는다고 말하

‘대통령 탈당’이 해법이다

김병준 총리

김병준 총리

재협상’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등은 비교적 쉬운 문제다. 자유무역협정은 일방이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종료된다. 미국에 유리하게 재협상 하지 않으면 자동 종료 조항을 발동할 수도 있다. 미군 주둔 비용에 충분히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모두가 트럼프 지지층으로부터 환영받을 일이다. 북한 핵 문제는 완전히 외면하거나 선제공격론이 현실화 되거나 극단을 오갈 수 있다. 어찌 되었건 한미 관계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는 엄청난 격변이 예상된다. 중국과 일본이 바짝 긴장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가. 가장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대한민국 정치권은 아직 한가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지만 크게 힘이 들어가 보이지는 않는다. 통치의 도덕적 정당성과 정책 집합의 동력을 이미 상실한 탓이다. 아담은 총리 후보 추천 거부에 이어 이번 토요일 촛불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한다. 물론 트럼프 당선 소식이 전해지기 이전의 행보이다. 문제는 앞에서도 말했듯 상황이 심상치 않게 변했다는 사실이다. 정치적 급변 사태가 생긴 것이나 다름 없다. 대통령이냐 여

업(業)의 차이

김병준 총리

로 할 만큼 능력이 뛰어난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불편한 몸 때문에 평생 불편을 느끼며 사는 이도 있다. 출발부터 이렇듯 불공평한데 우리가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있어 이렇듯 힘겨운 노력을 경주해야하면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물을 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차이, 즉 행위의 차이이라고 한다. 고통이나 괴로움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조금씩은 다 갖고 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있어서 고통이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통이듯이,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을 지켜야 하는 고통이 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다. 학식이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을 것 같지만 실업자가 되고나면 그렇지도 않다.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도 막노동은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버티는 사람이 많고, 막노동하며 근근이 살았던 사람보다 오히려 삶에 대한 용기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흔히 자신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극한 상황으로 표현하는데, 고통은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 따라 괴로움의 깊이가 다른 것뿐이다. 사업에 실패한 것이 인생의 전부를 실패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직장 잃은 것

야 모두 지금과 같은 정치적 교착 상태를 더 끌고 간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이 초래될 수도 있다.

변화의 물꼬는 박대통령이 터야 한다. 총리 권한 보장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야당 추천으로 임명될 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 해임건의권, 국정통할권 등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헌법대로 하면 당연한 일이다. 지금까지 헌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분명하게 선언할 필요가 있다. 왜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하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세느리당 탈당이다. 진정으로 거국중립내각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당적 이탈은 필수적인 요건이다. 하야나 탄핵은 헌정사에 불행한 오점을 남기는 것이다. 탈당이야 대부분의 대통령이 선택한 길로 세사스러울 것 같다.

아당은 이에 답해 이미 버려졌지만 김병준 총리 카드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야당이 총리 추천을 거부한 속내는 절대로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솔직히 밝힌 바대로 내가 추천하면 내

가 싫고, 내가 추천하면 내가 싫다고 할 게 뻔하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야당의 대안으로서 훌륭한 선택이다. 총리의 권한을 100 퍼센트 행사하겠다는 게 김 내정자의 포부다.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야당 사람이기도 하다.

국정 운영의 심장부에서 일해 본 경험은 어려운 시기에 귀중한 자산이다. 성공하거나 실패한 경험 모두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내각통합권을 행사하며 내년 선거까지 관리한다면 야당의 격정도 크게 덜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추천한 총리라서 싫다면 출할 정치에 다름 아니다.

끝까지 밀어 붙여 하야까지 생각한다면 더 큰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이다.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한다. 대통령과 정치권이 국정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자칫 외환위기 같은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야당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과유불급이고, 나설 때가 있으면 물러설 때를 알아야 한다. 대통령과 야당이 한발씩 물러서서 사태수습에 나서야 할 때다. 대통령 탈당과 김병준 총리 카드는 좋은 정치적 교환 품목이다.

김병준 총리

김병준 총리

라 훌륭한 농부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통해 되는 것이고, 도적도 처음부터 도적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도적질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가정을 가난에 빠뜨린 것이 외부에 원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가난을 이겨내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원망하는 마음과 욕심을 버리고 적게 가진 것에도 만족해 할 아는 것이 덕(德)이며, 작게 가져오도 남을 위해 베풀 줄 아는 마음과 행위가 선(善)이다.

비록 지금은 당장 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하고, 아이들 학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지라도 덕과 선으로 가난을 떨쳐 버리겠다는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욕심에 재량이 깃들어 있음을 알고, 오로지 적은 것에 만족하면서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이 욕심에서 벗어나 지혜롭게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지런함과 검소함, 그리고 베푸는 행위가 바로 나 자신의 삶과 가정을 운택하게 할 것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社 說

김병준 총리

김병준 총리

박 대통령 성난 민심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로 들끓는 민심이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서 분출될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 붕괴로 정상적 대통령직 수행이 힘들게 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국민적 여망이 겹쳐진 행사다.

‘민중총궐기본부’는 오는 12일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및 3차 촛불집회에 최대 50여 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10월29일에 열린 촛불집회에 2만여 명이 참석한 데 이어 지난 5일 집회는 30만 명(전국)으로 늘어나는 등 들불처럼 번져 다시 서울에서 결집하는 형국이다.

광주에서도 12일 학생, 시민사회단체, 농민, 노동자 등 시민 1만여 명이 상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서는 어제 각계가 참여한 박근혜 퇴진 광주 시민운동본부까지 출범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거듭 사과했지만 위기 타개용 개각을 단행하고 김병준 국무총리를 일방적으로 지명하면서 또다

시 민심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히려 정국을 더 꼬이게 하고 성난 민심에 불을 지피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변화와 쇄신을 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순실 파문에 대한 민심의 분노를 헤아리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2선 후퇴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국민 앞에 밝히야 할 것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멈춰 있고 경제가 한없이 추락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정 공백과 정국 혼란의 장기화를 지켜만 보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사태의 엄중함을 통감하고 최악의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구태를 반복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치적 이속을 행하기 위한 정쟁만 할 게 아니라 국정혼란 수습을 위해 총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누더기 도로’ 혈세 낭비 어디 이뿐이었나

도심의 ‘누더기 도로’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가 서로 짜고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아스콘으로 부설시공했다는 것이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은 돈을 받고 비리를 눈감아 줬다.

장성경찰서는 관급 도로공사의 아스콘 납품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아스콘 제조업체 대표 A씨(50) 등 20명을 입건, 기소 의결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아스콘 시공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전남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B(53) 씨와 준공조서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 C(38)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광주·전남아스콘조합’에서 광주점단2단계 조성공사와 나주혁신도시공사 등 광주·전남 지역 19곳의 관급 도로공사 납품을 배정받은 후 시공업체와 짜고 배정된 아스콘 중 90%만 현장에

납품하고 나머지 4만t을 빼돌려 쟁긴 3억5500만 원 상당을 나눠 가진 혐의다. 이 때문에 설계상 아스콘을 5cm 이상 두께로 포설해야 하지만 실제 두께는 3.5cm에 불과해 곳곳에 금이 거거나 깊게 파인 도로가 많았다. 경찰은 아스콘 납품비리가 도로 부설공사로 이어졌고 규정보다 얇은 아스콘도로는 누더기 도로의 원인이 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등 증거를 직원의 주거지 아파트 베란다에 숨기고 일부는 불태우는 등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스콘 납품비리는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만연돼 있다고 한다. 이번에 몇 군데에서 불거졌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사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엔 업자들과 결탁한 비리 공무원들에 대해선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無 等 鼓

국가 권력과 기업이 결합해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부정부패는 독점(獨占)이다. 한 기업이 특정 산업을 지배하는 ‘독점 시장’이야말로 이윤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이 바라 마지않는 최고의 시장 형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에는 권력자와 상인, 기업이 독점 시장을 ‘거대’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한다. 17세기 영국의 왕 제임스 1세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독점권’을 판매했다. 당시 왕이 얼마나 많은 독점권을 만들어 냈는지 시중에서는 “독점권자들에게 돈을 내지 않고서는 술을

가득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지금이야 세계 각국이 반(反)독점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시장에 참여하고 사업을 유지하는 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경우가 같은 독과점의 유혹이 생겨나게 되는 데, 국가 권력과 기업 간의 음습한 거래가 탄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기업은 독과점을 요구하고 국가는 대가를 받고 이를 수용하는 구조인데, 일부 재벌 마시거나 카드놀이를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세수나 빨래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영국에서 이처럼 많은 독점권이 거대된 것은 왕의 권력이 강력한 데다, 상인의 입장에서도 ‘비싸지만’ 독점권을 사는 것이 가장 쉽게 그리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국민을 ‘봉’으로 본 권력과 기업이 ‘경쟁 유작’을 통해 ‘독점시장’을 만들어 낸 셈이다. 하지만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자 영국 의회는 1624년 왕이 의회의 동의 없이 멋대로 독점권을 생산·판매하는

반독점법

대기업이 국가적 이익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에 집중하는 현재의 우리 시장구조에서는 그 같은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불법 모금이다.

최순실의 농간에서 비롯됐지만, 시장 정책 결정에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권력과 기업 간의 불순한 거래가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민주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홍행기 사회1부장 redplan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사 02-773-9331 	